



:: 시카고 KCLC / CLC-USA 소식 ::

총무 1) 시카고 한인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 규칙서 전 회원에게 이메일 발송
 2) 대면모임시 화,수,금 미사후와 주일 아침 7 시부터 영어미사 전까지
 5 개 교실 사용가능 (신부님의 승인 후 공동체별로 구체적 논의)

재무 **KCLC Chicago 회비** - \$60/1 년, 부부인 경우 \$60+\$30 (NKCLC 로 \$12 보냄)
CLC USA 회비 - 서약자 \$80/1 년, 미서약자 \$40/1 년 (모두 NKCLC 로 보냄)
 우크라이나 성금 \$1,240 을 한국 예수회 기쁨 나눔 재단에 전달함

양성 1) 4 박 5 일피정 준비 작업
 2) 소공동체 모임에서 사용될 교재비 조정
 3) 서약자 모임에 참석 권고

가이드 1) 현재 유기서약, 종신서약 준비 진행중에 있고 갱신서약은 4 월말로 마침.
 2) 서약식은 8월 연피정 파견 미사에서 가질 예정

사도 1) NKCLC의장단 회의에서 각 Frontier Working Group representative 현황발표가
 있었습니다.
 2) 제 2차 슈퍼비전 모임(김두현 사도 요한 신부님, 가이드 2명)이 5월3일에 있습니다.

홍보 웹 사이트 작업
 뉴스레터 작업

:: 책 ::



성인의 자서전은 다른 이들의 필요에 자신을 열도록, 한 인간을 변화시켜 나가는 힘찬 은총의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단순한 현실, 즉 남을 도우려는 의도가 성인으로 하여금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아 동지들을 모으고 중국에는 예수회를 창립하게 만들었다 (제 34 차 예수회 총회 문헌)

한국 예수회 기쁨나눔재단 석요섭 신부입니다.

지난 달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성금에 시카고 KCLC 회원 17 명이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총 모금액 \$1,240 을 한국 예수회 기쁨나눔재단에 보냈고 담당이신 석요섭 신부님께 받은 답장을 회원들과 공유합니다.

“주님 부활의 기쁨을 시카고 KCLC 회원들과 함께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부활로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받는 난민들에게 희망이 되지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긴급 구호 성금은 기쁨나눔재단의 계좌로 미국에서 송금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1005-702-722759). 송금하실 때, 기쁨나눔재단에서 송금수수료를 부담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석요섭신부님은 기쁨나눔재단에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재단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사진을 누르세요.



:: 방문해 보세요 ::

예수회 후원회
예수회 센터
말씀의 집
순천예수회영성센터
예수회 기쁨나눔재단
각 단체에 링크가 되어있습니다.

예수회 후원회

기존회원님의 지속적인 후원 부탁드립니다.

• 미주지역 후원금 보내실 곳
USA Midwest Jesuits, 1010 N. Hooker, St., Chicago, IL 60642
보내신 내역을 이숙영 막시마 자매에게 카톡으로 보내 주십시오.

5 월 후원회 강의: 5/9(월) 9pm(CT) 권오창 신부/사랑으로 창조된 우리
5/23(월) 9pm(CT) 권오창 신부/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삶
zoom id : 979-720-4403 비밀번호: 1



신청서



5 월호

:: 성소 후원회 ::



2022 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제 59 차 성소 주일 담화 <인류의 가족을 이루라는 부르심>을 소개합니다.

성소 후원회를 소개합니다 (유현민 아녜스)

성소후원회는 1998 년 청소년들의 사제성소를 위한 기도모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본당 사제와 수도자 및 예비 성소자들을 영적 물적으로 지원하고, 성소모임인 못자리 모임을 진행하며, 신자들을 대상으로 성소를 알리는 행사를 기획하고 팬데믹으로 중단된 상태이지만 후원금 마련을 위한 상품권 판매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3 명의 회원분들이 계시며, 산하 단체인 못자리 성소모임은 15 명의 엄마들과 25 명의 아이들이 매월 셋째 주일 (3:30-5:30pm)에 줌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4 월에 있었던 소공동체 시노드 나눔입니다.

[마니피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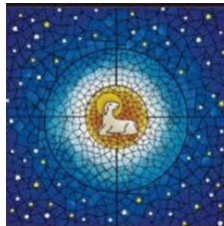
시노드 성찰을 숙고하며 주님 뜻과 시대의
가졌습니다. 부정적 감정이 교차된
재조명하며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기도를 배우고 진솔한 체험의 나눔과
시간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감사하며 상호 경청의 부족함 등을 재인식하였습니다. 각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함께 하시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필요에 따라 적절히 인도하여 주신 성령의 신비한 은총에 뜨겁고 벅찬 감동의
울림을 느낀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표징을 식별하는 은총의 시간을
시작이었지만 각자의 삶과 신앙의 역사를
느꼈으며, 더불어 시노드를 통해 새로운
성장을 되돌아보는 정화의
응원하고 존중하며 신뢰하는 수호 역할에

[실로암]

전원이 참석하여 2시간 동안 진솔한
통하여 위로와 힘을 얻고 살아온 것에 대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 사랑에 대한
이웃에게 봉사하고 시노드 정신으로
시간이었습니다.



나눔을 가졌습니다. 이민 교회 공동체를
감사가 삶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새삼
응답으로 서로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살아가자는 생각을 한 은총의

[순례자]

시노드 나눔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나눔을 통해
있는 감사함을 알게 되었고, 저희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시작한 모임이 성령의 이끄심으로
저희 모두가 교회 공동체에 대해 갖고
공동체가 성령안에서 일치되어 있음을

엠마오

시노드 나눔을 통해 교회 안에서의 체험,
생각해보게 되었으며 교회 공동체가 많은
이루어져왔음을 되돌아 보는 계기가
교회를 위해 우리 각자가 어떻게 행동할



교회문화, 이민교회의 한계성에 대해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되었습니다. 또한 후손들에게 남겨줄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야훼이레

팀원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시노드
시작했지만 곧 마음이 열려 새롭게 볼 수
따르며 느슨해진 유대감이 다시 결속되는



모임을 했습니다. 혼란과 부담감으로
있게 하시고 활력을 주시는 성령의 흐름을
자리가 되었습니다.

[아니마 크리스티]

참여의 중요성, 새신자와 냉담자들을 환경수호를 위한 Catholic Bucket Challenge 또한 개인의 역사안에 계시며 저희와 뜨거운 성령의 불을 타오르게하는 경험을 더불어 모두함께 출발할 준비가 되어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소공동체와 반모임으로 적극 인도하기 그리고 실행방안까지 풍부한 성찰 나눔을 했습니다. 함께하신 성령님의 현존이 모두의 가슴안에 하였습니다. 교회 쇠신의 출발선에 교황님과 마음가짐으로 마무리한 은총의

[마지스]

자매님들의 시노드에 대한 진지한 자세와 하는 마음들의 움직임이 느껴지는 감동의 도우심과 위로에 감사드립니다.



진솔한 나눔들,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자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의

[로올라]

시노드 모임 동안 함께 나누며 성령의 시노드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에 성령의



도움이 있으심을 느끼고 기뻐했습니다. 도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만레사]

어렵고 조금은 부담스러운 자리였지만 기울이며 성당 공동체의 중요성과 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시노드 걸어가는 여정"에 초대 해 주셔서



개인성찰을 통해 성령의 목소리에 귀 감사함을 느끼며 서로 경청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함께 감사합니다!!



이근상 시몬 신부의 영신수련 에세이 1-기도와 침묵 (이 글은 예수회 한국 관구 <이냐시오 포커스>에 실린 글입니다.)



누가 진짜 친구냐?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응답이 가능할 텐데, 친구라 하면 말없이 같이 있을 수 있는 이가 아닐까. 진짜 깊은 고민들이란 말로 풀어 놓을 수가 없다. 자신의 치부를 누구에게라도 드러내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상처란 대부분 위태하고 여린 살갓이어서 덮어 놓은 환부를 열어 제치는 건 매우 힘겨운 일이기 때문이다. 말이 없을 때, 말이 있는 나라야 편이 되어줄 수 있다는 이들과 말이 없을 때 말이 없기에 더 가까이 다가와 말없음으로 한 편이 되어주는 이. 결국 남과 친구란 이 말 없음이라는 경계에서 갈리고는 한다.

기도 속 대화 역시 마찬가지다. 진지한 대화란 말로 다 풀어 헤쳐질 수 없다. 말은 그저 양념 같은 역할일 뿐, 본래 재료가 좋으면 양념은 덜 할수록 좋듯, 뭉든 빈자리를 없이 끼워 넣는 건 추한 것이다. 말은 줄이고, 마음이 커져야 한다. 그렇게 마음으로 서로의 곁에 자리를 내 주는 대화. 주님과 진짜배기 좋은 친구라면 우리 말없음으로 소통하는 날에 다다를 것이고 한번 그 맛을 본다면 말로 주절거려야 할 가벼운 대화란 어릴 적 추억이 될 공산이 크다.

기도만이겠는가. 관계란 말로 붙일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마주하여 서로에게 머물며 천천히 그의 마음을 느껴보는 것. 클릭하면 새 장면이 썩 펼쳐지는, 그렇게 펼쳐져야 하는, 속도가 생명인 세상에서 좀처럼 만나기 힘든 이 느릿하고 답답한 말없음은 사실 모두에게 고향처럼 아늑하고 그립다.

기도는 이 침묵, 같이 하는 침묵이 커켜이 눈처럼 쌓이는 관계이라 짐작한다. 언제든 찾아가 머물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울 수도, 미소 지을 수 있는 내밀한 장소. 내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든, 바깥에서 외치는 소리든, 소란이 방해할 수 없는, 거친 말은 뚫고 들어 올 수 없는 마음의 방공호.

기도를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라고 하는 가르침은 참으로 진리다. 기도로 우리 그분의 현존을 감지하고, 동시에 우리의 현존을 그분께 알린다. 다만 말이 필요한 날. 어깨를 돌려줄 손길이 필요한 날. 당신과 우리 사이의 침묵이 아쉽고, 당신이 그저 멀리 있어 길을 잃은 날. 한 말씀 해주시기를 간청하는 그 날, 당신의 침묵은 여전히 말 없음일까? 그 날에는 그 날의 소리가 있으리라.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할퀴고 주님 앞에 있는 바위를 부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람 가운데에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1 열왕 19,11-12)

이제벨에게 쫓기던 엘리야가 들었던 소리는 ‘조용하고 부드러웠다’고 한다. 히브리말 직역은 뜻을 알아챌 수 없는, 침묵의 작은 소리다. 어떤 우물거림. 그러나 그 보드라움, 그 작음에 깃들인 하느님이 감지되는 침묵. 하느님의 소리는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무기가 아니라 그저 내 작은 얼굴을 가리고 주님임을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작고 여리다. 마치 내 곁에서 울고 있는 그 누군가의 신음처럼, 지나쳐온 술한 이들의 힘겨운 일상이 내는 우물거리는 소리. 엄마가 부르는 내 이름. 조심스럽게 내 처분을 기다리던 작은이들의 소리. 침묵의 얼굴들. 듣고자 하는 이의 간절함에 응답하는 당신의 대화법은 말이 없고, 조용하고 부드럽다. 그저 잠정적으로 침묵이라 이름 지을 뿐이다. 달리 어떤 말이 어울리랴. [2019.12.30]